

광복100년 국민동 행 창립대회 기록 집

광복100년 국민동행

2026년 8월 14일

CONTENTS

광복100년 국민동행 창립대회 기록집	
일러두기	
식순	
개회	
개회사	
축가	
경과보고	
종교계 공동대표 인사말	
정순택 대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영담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쌍계사 회주)	
공동대표 인사말	
황석영 작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신희영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최순영 부천 YMCA 이사장	
이성훈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	
축시	
이사장 인사말	
창립선언문 낭독	
광복100년 국민동행 창립선언문	

폐회

광복100년 국민동행 창립대회 기록집

2026년 8월 14일(금) 14:00 ~ 15:40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광복100년 국민동행

일러두기

1. 이 기록집은 2026년 8월 14일 창립대회 현장 녹음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발언의 내용과 순서는 그대로 두고, 음성 인식 과정에서 생긴 오류와 말버릇만 바로잡았습니다.
 2. 축가의 노랫말은 음성 기록이 온전하지 않아 곡명만 남깁니다. 축시와 창립선언문은 자료집에 실린 원문을 수록했습니다.
 3. 발언 중 언급된 일부 인명·기관명은 음성 기록을 옮긴 것으로, 추후 확인 과정에서 정정될 수 있습니다.
-

식순

순서	내용
개회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선열 묵념 · 애국가 제창)
임원 소개	공동대표 · 이사진 · 창립공동준비위원장 소개, 기념 촬영
개회사	이부영 창립공동준비위원장
축가	장사익 — 「두물머리」 · 「아리랑」
경과보고	김태일 창립공동준비위원장
인사말	종교계 공동대표 — 정순택 · 이영훈 · 영담
인사말	공동대표 — 황석영 · 오세정 · 신희영 · 최순영 · 이성훈
축시	이근배 시인 — 「마침내 지구 으뜸의 한글 나라 만세」
인사말	강우일 이사장
창립선언문 낭독	정강자 · 이기범 · 박준규 · 정유현
폐회	

개회

사회자가 개회를 알렸다.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애국가를 1절까지 제창했다.

이어 사회자가 임원을 소개했다.

공동대표 — 정순택(대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이영훈(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영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쌍계사 회주), 신낙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해외 일정으로 불참), 황석영(작가,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오세정(전 서울대 총장), 신희영(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박종진(예비역 육군 대장, 해외 일정으로 불참), 최순영(부천 YMCA 이사장), 이성훈(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사단법인 이사진 — 이사장 강우일(주교, 천주교 전 제주교구장), 상임이사 이부영, 이사 이암(스님, 고성 문수암 주지), 채수일(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정성현(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 이기범(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창립공동준비위원장 — 이부영, 임현진, 정강자, 김태일, 이기범, 신희영, 최화식(예비역 육군 준장), 서유석(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불참), 박준규(한반도청년미래포럼 창립자)

소개를 마치고 참석자 전원, 공동대표단, 이사진·창립공동준비위원장단 순으로 기념 촬영을 했다.

개회사

이부영 창립공동준비위원장

초가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2045년 광복 10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2023년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하도 혼란스러워서 이 모양 이 꼴로 2045년을 어떻게 맞을 것이냐 하는 고민 속에서 시작했는데, 별안간 쿠데타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런 고민은 염두에도 두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평화적으로 쿠데타를 극복하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2045년 광복 100년을 본격적으로 맞이할 고민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80년 동안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딱 반을 갈라서 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산업화를 이뤄 낸 것이 전반기 40년이었다면, 민주화를 통해서 그 산업화와 국민의 생존권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 후반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이 서로 둘로 갈려서 역사를 해석하고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식민지와 독재, 빈곤을 극복한 경험을 세계가 인정해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안쪽에서는 각자도생으로 내몰린 국민의 삶과 청년의 고독이 그런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 그런 예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 광복 100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서로 상반된, 분열된 시각을 가지고 2045년 광복 100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결단해야 할 변곡점에 이르렀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서로 갈려서 분열과 대립을 일삼는 것은 비단 정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냥 시간이 가면서 조용히 망하는, 조용하게 쇠퇴해 버리는 시기로 접어들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용과 공존, 절제와 대화라는 제안에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하고 오늘 이렇게 모여 주셨습니다.

요즘 세태가 앞에서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고개도 돌리지 않는 세태 아닙니까. 자기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고개도 돌리지 않는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과 공존, 절제, 대화 — 어쩌면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덕목인데 — 이런 것에 관심을 보여 주시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한 변곡점, 요새 영어 표현으로 하면 골든타임이라는 시점이라는 데에 다들 동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뜨거운 긍정을, 우리들 자신을 긍정하자는 생각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과 창립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호소를 했더니 후원금도 많이 모였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빛도 내서 준비했는데 빛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우리 스스로를 향한 긍정이 그런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장사익 — 「두물머리」 · 「아리랑」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이 되는 두물머리처럼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를 묻는 노래와 아리랑을 불러 창립을 축하했다.

경과보고

김태일 창립공동준비위원장

김태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부영 준비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의식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23년경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에 와서 이른바 ‘2045년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갔고, 2026년 3월에 와서 3·1절을 계기로 광복100년 국민동행 제안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또 각계각층의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 다듬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되었던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긴 안목에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시민운동, 국민운동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제는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국민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컸습니다.

둘째,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2045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리는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의무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였습니다.

‘광복100년 국민동행’이라는 명칭도 그 과정에서 다듬어진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광복100년 국민행동’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국민행동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다정한 시민운동, 다정한 국민운동이라는 점에서 ‘국민동행’이라는 개념이 적절하다는 말씀들이 나왔고 그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름 참 잘 지었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습니다만, 그것 역시 창립 준비 과정에서 여러 지도자들의 의견이 나와 함께 공감을 만들어 정리된 것입니다.

제안 설명회 때 제시되었습니다만, 포용·공존·절제·대화라는 가치를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삼아야겠다고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덕목이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그 가운데 ‘절제’라는 덕목을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 널리 천명하게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나, 설명 좀 해 달라는 요구도 뒤따랐습니다. 절제라는 덕목이 그동안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었지만,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경쟁·일변도와 개인 능력주의의 가치를 지상으로 여겨 왔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비로소 그것을 넓은 공론의 장 위에 펼쳐 놓고 고민하자는 제안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용과 공존은 익히 들어온 말이고 대화도 들어온 말인데, 절제라는 덕목이 참 새롭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일단 여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조차도 지금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긴 안목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다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일 위원장은 사진과 함께 준비 과정을 보고했다. 광주·전북 지역 인사들과의 민주화 기억을 잇는 대화, 고창 선운사와 지리산 실상사에서 연찬, 대구·부산·마산의 영남권 종교계·지역 인사와의 만남, 서울·수도권의 천주교·기독교계와 문화예술·학계 연대의 자리가 있었다. 윤공희 대주교, 정순택 대주교, 강우일 주교, 대구대교구 교구장과 부산교구장·마산교구장, 개신

교 지도자들(채수일·유석성·손달익·이영훈·김용주·강경민), 영담 스님,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대구의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이장희·윤형주 가수, 정대철 헌정회 고문 등과의 만남이 소개되었다. 6월과 7월 두 차례의 공론마당에서는 생태문명 대전환과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했고, 중앙일보 지면을 통해 두 차례의 대담 —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의 ‘대립을 넘어 공존의 언어를 찾다’, 조갑제닷컴 대표·박명림 연세대 교수·이부영 준비위원장의 ‘미래를 향한 공론의 시간’ — 이 있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와 정책연구, 사회통합 시민공론장, 기후생태, 미래세대, 한반도평화, 글로벌연대, 그리고 논의의 기록과 축적,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국민동행과 광복 100년이라는 문제의식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 과정에서 의견을 모아 주셨던 여러 어른과 지도자들께, ‘광복100년 국민동행’이라는 표제어와 포용·공존·절제·대화라는 중요한 덕목과 가치를 일깨워 주신 이 자리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계 공동대표 인사말

정순택 대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입니다. 먼저 뜻깊은 광복100년 국민동행에 공동대표라는 자리를,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동행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제안발표회에서 이부영 전 국회부의장께서는 광복 100년을 앞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을 넘어 화합의 길을 찾아야 하며 그 책임이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교회 역시 최근에 시노드 여정이라고, 함께 걷는 교회의 여정을 걸으며 같은 물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노드는 단순한 회의나 제도가 아니라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며 함께 길을 찾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저는 국민동행이라는 이름에서도 바로 이러한 정신을 봅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더 큰 공동선을 향해 함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말하기보다는 절제하여 더 깊이 듣고, 갈등을 대화로 풀어 포용하며, 경쟁보다 협력과 공존을 선택하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100년 국민동행이 내세우는 포용·공존·절제·대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이 동행이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현재 UN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국 수가 193개국입니다. 그 가운데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이 극심한 갈등 사회의 현실 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이념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그래서 혼란 속에 방향을 잃어버린 지금, 이부영 이사장께서 이 귀한 모임을 결성해 주시고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갈등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모여 뜻을 합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아진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일을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담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쌍계사 회주)

동행의 당위성은 앞에서 말씀들을 하셨으니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경에 이 부영 의장께서 제가 있는 부천에 오셔서, 경상남북도와 대구·경북에 있는 스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추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독립운동 하면 만해 한용운도 있지만 백용성 스님이 있잖아요. 백용성 스님으로 따지면 사찰로서의 종가택은 범어사입니다. 그래서 범어사 방장 스님을 추천했고, 문중 관계로 따지면 백용성 스님의 현손, 즉 적손이라고 할 수 있는 학담 스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 때는 각 본사가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다 했습니다. 해인사에서 200여 명의 스님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할 때 직지사의 김봉률 스님이 거기 가서 함께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제 경찰에 의해 형무소에 다녀오신 뒤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셨고, 다시 들어와 활동하셨습니다. 도리사에도 그런 활동을 하신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직지사 회주 스님을 모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혹시나 싶어 말씀을 드렸더니 이 어른들을 다 기억하시더군요. 오늘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법등 스님과 흥선 스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제가 있는 쌍계사에서는 1916년에 현대 교육을 위해서 보명학교를 만들었습니다. 3·1운동 때 서울에서 3월 1일에 했기 때문에 4월에 그곳에서 만세운동을 한 김주석 스님이 계셨고, 보명학교 학생들이 화개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쌍계사 말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좀 더 찾아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3·1 만세운동, 그것이 완성되도록 하자는 이 모임이 ‘동행’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행동’인가 헛갈려서, 그럼 내가 행동대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동행이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우리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동대표 인사말

황석영 작가

제가 쌍쌍하던 사람인데 근래 몇 년 사이에 확 삭았네요.

저는 원래 왼손잡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자라날 때 우리 모친이 교육열이 아주 센 분이었는데, 일제 때 대학 교육도 받고 그랬으니 알 만한 양반인데,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수저를 잡거나 특히 연필을 잡아 글씨를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본능적으로 왼손을 쓸 때마다 손을 톡톡 쳤어요. 수저를 다른 손으로 잡으라고. 그래서 갈등이 되죠. 바른손으로 쓰는 연습을 해서 그다음에는 익숙하게 바른손을 썼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더니 훈련소에 M1 소총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놓고 오른손으로 당겨서 쏘아 됩니다. 미군에는 왼손잡이 총이 있다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사격에서 빵점을 맞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보통 ‘바른손’이라고까지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이쪽이 굉장히 우세한 거예요. 저는 왼손잡이로서, 오른손잡이들이 쓰는 물건들이 온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 물건들과의 불화를 통해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로서 소설을 쓰다 보니 그게 꽤 유리한 입장이더라고요.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억강부약, 강한 놈한테는 대들고 약한 사람 편을 먹어서 같이 돕고.

우리가 진보니 보수니 하는 말이 생긴 게 아마 해방 이후 계속된 권위주의 정부 치하에서 수많은 억압 속에 살아오면서일 겁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념의 모양이 갖춰지고 진보진영, 보수진영, 그리고 87년 체제의 유산으로 거기다 지역감정까지 있습니다. 남북이야 뭐,

지금도 스스로 적대적 두 국가라며 저렇게 뻔대고 있고요. 분단체제에다가 진영 갈등에다가 거대 여야가 서로 번갈아 엮어치기를 하면서 정치 우선주의로 쌓인 갈등이 많아요. 더 심해요. 문단에서도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자꾸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합니다.

지금 오른손 왼손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만, 언젠가 보니까 제가 양손을 다 쓸 수 있더라고요. 한쪽은 타고난 거고 한쪽은 계속 습득해서, 어머니 덕분에 양손을 다 쓸 수 있게 된 거죠.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멀티핸드, 양손잡이가 되는 겁니다. 양손잡이가 왜 유리하냐면, 손을 모으면 기도가 되고 팔을 벌리면 포옹이 돼요. 안을 수가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이쯤 되면 스탠스를 좀 옮기자는 겁니다. 오른편 왼편이 너무 멀면 꼭 그네의 진폭 같아서, 타고 있는 대중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진폭을 좀 줄이자. 쌍방이 가운데쯤으로, 중도쯤으로 좀 모아자. 끝에 있는 사람들도 미워하지 말고, 나중에 가운데서 서로 만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안녕하십니까, 오세정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설 자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계 분을 모시다 보니까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일 교수님도 나오셨고 임현진 교수님도 나오셨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공동대표를 맡게 되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학계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다른 분야 못지않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역사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육감 선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진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싸움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갑자기 한쪽으로 쏠렸다가 반대쪽으로 가야 하고, 이런 일을 계속 당해야 하는가. 교육계에 있으면서도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창립하는 ‘동행’이라는 말이 저한테 상당히 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동행, 같이 가고, 절제하고, 대화하고. 황석영 작가님 말씀대로 조금 거리를 좁히자는 것입니다.

정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45년 국가전략’ 모임이 있습니다. 이한주 원장이 주관해서 국책연구원들이 참여하는데, 제가 거기 자문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화를 시키면 어떨까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금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부 부처에서도 2045 국가전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것보다 조금 더 실무적이겠지만, 이 모임에서 굉장히 좋은 지혜를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힘 있는 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영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으로 소개받은 신희영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백혈병 어린이를 치료하는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더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제30대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빨리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을 쭉 하다가 이번에 공동대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높은 자리를 주시나, 이부영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각 종교계가 다 있고 학계가 있는데 왜 보건의료계가 없지, 의아했습니다. 의사들이 이런 활동을 좀 더 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건의료계도 이런 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버릇이 몇 년 가는지 아십니까? 77년 갑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이 100살까지 사는데 왜 여든까지밖에 안 가지 했더니, 여든이 넘으면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까지가 딱 광복 80년입니다. 내일부터 81년이 되면 망각이 오려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1955년생이라 전쟁이 끝난 이후를 많이 겪었습니다. 일제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서 3·1운동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 가며 독립을 쟁취했는가, 그 기억이 왜 지금 점점 잊혀 가고 있나. 지난주에 굉장히 끔찍한 뉴스를 봤습니다.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를 SNS에서 나쁘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싶었습니다.

저는 1955년에 태어나 살면서 전쟁 이후의 가난을 다 겪어 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쥐 잡는 날이 있어서 다음 날 학교에 쥐를 몇 마리씩 들고 가야 했고, 기생충 약도 학교에서 나눠 줘서 먹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못 받았어요.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은 병원에서 수술해 놓고 밤에 환자한테 도망가라고 하신 적도 있을 정도로 우리 의료가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해서 1956년부터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서울의대 교수 77명을 데려다 교육을 시켰고, 그분들이 위주가 되어 우리나라의 의료를 30년 만에 세계 몇 위에 들 정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작년 전 세계 병원 평가에서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이 다 100등 안에 들었지만, 제일 기뻐던 것은 어린이병원 평가에서 제가 일했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이 전 세계 1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의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 주당 140시간씩 일하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일했던 너희 선배들이 있었다고 젊은 의사들한테 이야기하면, 젊은 의사들은 저보고 꼰대라고 합니다. 우리 다 잘 사는데 주당 52시간, 다른 분야 근무하는 것같이 우리도 8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요. 그럼 그

환자들을 다 누가 보지? 이런 걱정이 되면서, 아 이게 바로 여든이 넘어가면서 오는 기억의 상실, 망각이 시작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광복 100년을 앞두고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은, 예전 우리의 아픈 기억들을 잊지 않도록 계속 이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일제 강점기 유물을 다시 모아 한 군데에서 전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임시정부기념관, 이러한 유물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 곳에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데려가서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동행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기범 이사장과 같이 북한에 병원을 세 개 지었고, 제일 마지막에 지은 것이 평양의대 소아병동입니다. 220병상짜리 병원을 지어서 직접 환자도 진료했습니다. 그때 서울의대 교수 30명이 한 달간 방북해서 직접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이, 건강 상태는 많이 열악하지만 그 부모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우리 한국인이 맞구나. 어려운 과정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십자사 회장 3년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도, 우리 국민은 기본적으로 배려심을 가진 따뜻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동행이 일을 하면서, 남과 북의 7,500만 한국인,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00만 한국인이 같은 발걸음으로 한곳을 향해 동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저는 보건의로 분야에서부터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영 부천 YMCA 이사장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YMCA 이사장보다는, 현재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없으니 노동자 대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다른 노동자들이 저를 위임하지는 않았겠지만 70년대 노동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노동자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동행의 창립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분간 하라고 해서 메모를 좀 해 왔습니다.

지난 80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 간 독립투사들의 숭고하고 뜨거운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국을 되찾는다는 일념 하나로 차디찬 감옥과 이국땅에서 목숨을 바쳤던 그분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비로소 오늘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헐벗고 굶주린 고통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묵묵히 땀방울을 흘려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자식을 가르치며 캄캄한 공장, 거친 들판에서 밤낮없이 일해 왔던 그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으로 오늘의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민주화의 여정 속에서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독재의 포악과 부당한 권력에 맞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투쟁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참된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싹틔우기 위해 거리에 나서서 최루탄을 맞으며 피를 흘렸던 그들의 끈질긴 저항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20년은 대립과 분열을 넘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 주는 포용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승자독식의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를 굳건히 복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앞에 닥친 기후 위기와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좁혀 나가는 담대한 대화와 교류가 필요합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상생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번영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길이고 완성된 광복 100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훈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

반갑습니다. 올해 5월 대한민국 인권·평화·민주주의 대사로 임명받은 이성훈입니다. 저는 사실 이 동행의 회원으로서 그동안 참여해 왔고 그 역할을 하려 했는데, 며칠 전에 공동대표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막내가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보니까 역시 제가 막내네요.

대외직명대사는 전업 외교관이 아닙니다. 민간인 중에서 특정 분야에 대사 지위를 부여해서 정부 외교를 보조하고,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침 동행에서 추진하는 취지와 연결이 잘 되고 제가 국제적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동대표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면서 2045년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2045년까지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선거가 네 번, 국회의원 선거가 여섯 번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여러 번의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네 번 있고, 일본은 워낙 자주 바뀌니까 총리가 열 명은 바뀔 것 같고, 우리 주변의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보면 지금 지도자는 아마 그때 세 분 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UN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UN 사무총장 선거가 있고, 그때까지 한두 번은 더 바뀔 것입니다.

이런 큰 변화를 내다보면서, 향후 19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45년뿐만 아니라 2048년과 2050년도 함께 봅니다. 2048년은 세계인권선언 100주년이고, 2050년은 한국전쟁 발발 100주년이면서 동시에 기후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해입니다. 1945년을 기억할 때 원폭이 있었고 우리가 해방되었고 유엔이 만들어졌듯이,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 동행의 의제를 만들어 나가고 실천하는 부분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게 되어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시

이근배 시인 — 「마침내 지구 으뜸의 한글 나라 만세」 (대한민국 광복 100년에 올리는 노래)

이근배 시인이 자필로 써 온 축시를 낭송했다. 전문은 자료집과 korea2045.org 헌시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이사장 인사말

강우일 이사장 (주교, 천주교 전 제주교구장)

저 자신 해방둥이로서, 광복100년 국민동행의 동행자로 나서 달라는 권유에 기쁘게 동참하였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세계 열강의 제국주의적 개입과 정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랜 세월을 두고 이 땅을 지배하던 절대군주 중심의 전제주의적 굴레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출신과 신분, 계층과 직업을 초월하고 고귀하고 평등한 존재로 존중받는 새 시대를 격하게 환호하며 떨리는 가슴으로 마중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여러 세기를 두고 이러한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눈이 빠지도록 고대하고 갈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대는 우리 스스로가 열었다기보다는 강대국들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역학이 빚어낸 돌발적인 결실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어둠의 장막이 갑자기 걷히고 이 땅에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 왔으나, 열강의 이기적 계산과 패권 다툼은 세계를 이념과 지역으로 양분하고 우리 겨레의 역사와 삶을 송두리째 분단하였습니다.

남이 우리 지도 위에 그어 놓은 한 줄의 선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는 스스로 만들지도 승복하지도 않은 정치 이념의 틀에 사로잡혀, 지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분단을 고착하고 반목하여, 80년 동안 동포를 철천지원수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증오의 벽을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또한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으로 온 땅이 잿더미가 되고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 쓰러진 이곳에서, 우리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더 아프고 고달픈 산업화의 여정을 걸으며 피와 땀으로 점철된 경제성장의 놀라운 도약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과 도약은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양극화의 격차를 만들고, 직업과 계층, 집단과 세대 간에 차별과 좌절이 지배하는 대결 구도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지구촌을 바라보면, 하나밖에 없는 인류의 보금자리는

지금 기후 붕괴의 절벽을 향해 시시각각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의 예언적 경고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인한 기온 상승은 이미 광범위한 산불과 가뭄과 홍수를 초래하고 있고,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산업 전반의 생산 감소로 이어져 지구촌 경제 전체가 정체되고 결핍이 반영구화되리라고 합니다. 지구 차원의 항구적인 결핍은 결국 부족한 물질의 쟁탈전을 불러와, 세계가 각자도생의 살벌한 싸움판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사상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선진국 진입을 뽐내어도, 나라 안팎으로 육박하는 분열과 대결의 폭력적 전장에서 서로 비난하고 상처 주고 분절되어 종말적 파멸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부모를, 형제를 선택하여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금수강산 어우러진 우리 고향도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선택하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가족도 고향도 자신의 노력과 공덕으로 획득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통째로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김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출신이 달라도, 직업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신념이 달라도,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고 공존할 자격이 있는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정당, 우리가 신봉하는 이념과 체제보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겨루고 다투고 앞지르기보다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보살피고 존중하며 공존해야 할 동료요 벗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비판과 배제의 근거로 삼기보다, 내가 갖지 못한 개성과 재능의 발견으로 기꺼이 소화하고 수용하는 아량의 집안식구입니다.

우리는 80년 전에 타오르기 시작한 한반도 역사의 불꽃에 우주적 기운을 힘껏 새로이 불어넣어, 광복 100주년에는 이 땅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한 가족으로 보듬고 감싸고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연민의 공동체로 나아갈 행보를 함께 시작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의 등대를 밝히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창립선언문 낭독

창립공동준비위원장 정강자·이기범과 청년세대를 대표한 박준규(한반도청년미래포럼 창립자)·정유현(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포럼 사무처장)이 창립선언문을 나누어 낭독했다. 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광복100년 국민동행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역사의 큰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광복 81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까지 남은 시간은 19년입니다.

백여 년 전, 남과 북이, 바다 건너의 동포가, 종교와 이념이 다른 이들이, 세대와 계층이 다른 이들이 한마음으로 독립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3·1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80년이 가난과 억압을 딛고 앞만 보며 달려온 경쟁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20년은 모두가 함께 걷는 동행의 시대여야 합니다. 1945년의 광복이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면, 2045년의 광복은 '무엇을 향한 건설이었는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려는 것은 함께 사는 공동체, 그리고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은 한때의 불황이나 환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문명의 전환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아갈 빛의 방향을 미리 정하는 일, 지금 이 시간이 그 길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나란히 올라선 드문 역사였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헌법의 절차와 광장의 양심으로 민주주의를 지켜 냈고, 세계는 그 시간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그늘에서 비극이 자랐습니다. 밖에서 보는 우리와 안에서 사는 우리가 너무나 다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와, 각자도생으로 내몰린 국민의 삶 사이에 깊은 골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태어나지 않는 아이, 사라져 가는 지방. 밖의 힘이 아니라 안에서 무너지는 위기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우리처럼 살면 지구 하나로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봄이 다 가기도 전에 한 해 몫의 자연을 써 버립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적으로 여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립은 정치에만 있지 않습니다. 경제와 노동에, 시민운동과 학계에, 종교와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진영의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갈라진 사회는 불공정할 뿐 아니라 덜 지혜롭습니다. 가장 깊이 끊긴 자리에 청년이 있습니다. 열에 다섯은 어느 정당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정치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요란한 붕괴가 아니라 조용한 쇠퇴입니다. 당장 무너지지 않기엔 결단은 미뤄지고, 그사이 사회의 활력은 천천히 말라갑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광복 100년은 자랑스럽게 기념할 수 없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앞서 걸어온 세대로서, 성장의 속도에 취해 함께 사는 법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번영을 일구는 동안 포용과 공존과 절제라는 기본을 소홀히 했음을 인정합니다. 성공을 만든 방식이 관성이 되어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어느 진영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지난 80년 성취의 절반씩을 부정하며 서로를 적으로 삼아 왔습니다. 협치와 절제가 사라진 정치는 남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초상입니다.

그러나 성찰은 자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고치는 힘, 그것이 지난 80년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가장 큰 저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존을 배워 왔습니다. 헌법이 마련한 틀 안에서 겨루고 또 바꾸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한 40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성찰은 주저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걷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광복 100년을 자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 네 가지 마음가짐으로 걸겠습니다.

포용,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을 받아들이는 너른 마음입니다. 공존, 그 다름을 안고 함께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절제, 이길 수 있어도 멈출 줄 알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지키는 자세입니다. 대화, 더 센 말과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먼저 듣는 귀입니다. 대화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먼저 공통의 마당을 만들고, 그 위에서 함께 길을 찾는 일입니다. 너와 나를 가르지 않는 나라, 누구나 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걷는 일입니다. 동행은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말할 자리를 얻지 못한 이웃에게, 사람이 아닌 못 생명에게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계와 함께 걷는 동행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2045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여섯 가지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일상이 가능한 나라를 바랍니다. 아이가 줄어들고 노인이 많아지는 일을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설계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돌봄의 짐을 사회가 함께 지겠습니다.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넘어설 새로운 배움의 틀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서울만 남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아도 삶이 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의 밥상을 지켜 온 이들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함께 다스리고 함께 책임지는 나라를 바랍니다. 권위주의의 40년과 민주주의의 40년을 지나, 이제 민주공화국의 40년을 열 때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서로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는 민주주의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파탄에 이르는 낡은 틀을 넘어, 새로운 헌정

질서를 이야기하는 마당을 열겠습니다. 위기의 광장에서 터져 나온 시민의 힘을 일상의 제도로 옮기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순해지는 사회를 바랍니다. 광복 100년의 주역인 청년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론 조사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먼저 듣겠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문화, 고독이 미움으로 자라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문화의 힘입니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심는 자유입니다. 앞선 세대의 재능과 시간과 자산의 일부를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남기겠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경제를 바랍니다. 기술이 가져올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올 때마다 따져 볼 겨를도 없이 끌려가지는 않겠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부모의 자리에 따라 갈리고, 가진 것의 차이가 사람의 값어치 차이로 굳어서는 안 됩니다. 나눔은 성장이 끝난 뒤의 시혜가 아니라,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기술이 달리는 속도와 일하는 사람의 안전망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생태와 환경이 가장 높은 가치가 되는 나라를 바랍니다. 사람만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과 흙과 공기가 성하고 못 생명이 성한 곳에서만, 사람의 자유와 평등도 설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 전환의 문제입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말한 헌법의 정신대로, 눈앞의 셈을 넘어 긴 시간의 눈으로 오늘을 결정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일상이 되는 나라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남북 겨레의 일상의 가치와 문화로 가꾸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평화는 물러섬이 아니라 먼저 내미는 손입니다. 대립과 전쟁의 아픔을 겪었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나라, 그 아픈 경험을 인류의 자산으로 잇겠습니다. 식민지와 독재와 가난을 넘어선 우리의 길을 세계와 나누며, 새로운 길을 찾는 나라들과 함께 걸겠습니다.

이 길을 위해 우리는 약속합니다.

하나, 공론의 마당을 열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마당을 전국으로 넓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토론과 합의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하나, 마음을 일깨우는 문화운동을 펼치겠습니다. 미움과 냉소로 사나워진 마음을 돌보는 문화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하나, 세대와 동행하겠습니다. 청년을 직접 만나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가진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사회적 상속의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하나, 지금 여기에서 미래를 미리 살아 보겠습니다. 마을과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가 꿈꾸는 내일을 오늘 실험하는 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생명의 편에 서겠습니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를 진영 없는 공동의 의제로 삼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 평화를 일상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이 겨레의 살림살이가 되도록 가꾸겠습니다.

우리는 2045년의 대한민국을 함께 그리는 운동입니다. 그곳에 이르는 길을 국민과 함께 묻고, 그 물음을 실천으로 옮기겠습니다.

지난 80년, 이 나라를 움직인 가장 큰 힘은 언제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국민은 정책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광복 100년의 대한민국도 국민이 완성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2045년은 이런 나라입니다. 사람과 못 생명이 함께 깃들여 사는 나라. 고르고 넉넉한, 인간적인 민주공화국. 분단을 넘어 평화를 잇고, 세대를 잇고, 세계를 잇는 나라. 다른 나라들에 꿈과 희망을 주는, 세계와 동행하는 대한민국.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갈망으로 초대합니다. 위기의 경고가 아니라, 함께 만들 내일의 설렘으로 손을 내밉니다.

함께 걸어 주십시오.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어 주십시오.

희망찬 광복 100년을 국민 여러분이 완성해 주십시오.

2026년 8월 14일 광복 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광복100년 국민동행 창립대회 광복100년 국민동행 회원 일동

폐회

사회자가 약 2시간에 걸친 창립대회를 마무리하며, 광복 100년까지 남은 19년을 함께 맞이하자는 인사로 대회를 마쳤다.

이 기록집은 창립대회 현장 녹음을 바탕으로 광복100년 국민동행이 정리했습니다.